ISM Church
International Student Mission Church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Phil 4:13)

•교회선교목표

1. 각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에게 복음의 접점을 만들어 신앙 시작의 끈을 만들고 복음을 나눈다.
2. 중국 신장성의 위그르족의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선교센터 설립.

■ 선교대상

한국과 미국에 있는 각국 유학생 또는 이민자들 & 중국신장성 위그르족

■ 선교방법

1.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지원과 정보(이민법률, 차량라이딩, 숙박정보, 일자리)등 정착에 도움을 주며 SNS(Wechat, Face book, Instagram, 인터넷 카페) 활용을 통해 교제의 접점을 만든다.

2. -매주 주일 예배모임과 센터 미팅 교제를 통한 직접선교
   -파티 형식식사제공 (젊은 층에 맞춰, 피자, 치킨,라면, 샐러드등)
   -과제물도움, 논문교정, 법률도움, 아르바이트,각종생활정보제공
   -기독영화 상영과 상영 후 퀴즈를 통한 상품(생필품)전달
   -이벤트성 행사 (의료상담, 취미강좌, 기독테마여행등)
   -취미소그룹 모임을 통해 신앙 성장을 도모

3. 중국우루무치시에 언어교육 비지니스 설립과 교육을 통한 위그르족 선교.

■ 양육방법

복음이 들어간 각 나라유학생 리더를 양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CMB 선교사로 양육
양육리더에게 일임 (1:1양육)

■ 교회조직

1. Online 선교사 (SNS홍보)
2. Offline 선교사(선교 이벤트기획 및 진행)
3. 평일 상담자 (로테이션형식)
4. 토요일미팅파티 진행간사, 양육간사
5. 주일예배 찬양인도자, 설교자, 양육간사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12 21센츄리시티빌딩 1233호 48508
www.ismchurch.org 070-7092-9716,/010-6398-2010

ISM Church

ISM 교회

Sep. 6, 2026

유학생선교교회 찬양과 경배

International Student Mission Church
Sunday Praise and worship

● 매주 일요일 I Every Sunday
AM 11:00 KOR I PM 10:00 US I Live Worship
Kor:82) 010 6398 2010 I U.S :1) 551 404 0738
youtube@ISMChurch I www.ismchurch.org
Pastor. Ho Soub Jang I 목사 장호섭

ISM Church
International Student Mission Churc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필립 4:13)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11:00 AM

1. 찬양과 기도 Praise & Prayer	기도와 찬양의 시간	모두함께
2. 오늘의 성경말씀 Scripture of the Day	**창세기 1:27, 마태복음 22:37–39, 요한복음 13:34–35**	모두함께
3. 성경 묵상나눔 1 Bible Share	성경나눔	장호섭
4. 삶속 묵상나눔 2 Bible Share	형제, 자매들의 묵상 나눔과 기도 나눔	모두함께
5. 기도와 찬양 Pray & Praise	말씀관련 찬양 & 기도	모두함께
6. 교회소식 Announcements	교회공지 및 행사	장성
7. 마침기도 Closing Prayer	성경 나눔 요약 및 마침 기도	장호섭

8.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 나눔 요약 1 (2026 Sep. 6 주일 찬양과 경배)



Pastor HS Jang

K-Culture에서 K-Christian Culture로

본문: 창세기 1:27, 마태복음 22:37–39, 요한복음 13:34–35

요즘 해외여행을 하면,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들을 수 있고, K-Pop을 듣고, K-Drama를 보고, K-Movie를 보고, K-Food를 먹고, K-Beauty을 사용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십년 전만 해도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던 모습입니다. 한때 세계의 문화는 주로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 었습니다. 그런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BTS나 BlackPink등 K-Pop이 세계 음악의 중심되고, K-Drama와 K-Movie가 넷플렉스에서 최고 순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과 패션과 미용과 언어까지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고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K-Culture**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문화가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80년 전에 K-문화의 번성을 소망하고 바란 놀라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은『백범일지』의 마지막 부분인「나의 소원」에서 자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김구 선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8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곳에서 한 사람이 꿈꾸었던 미래의 나라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K-Culture의 모습이 아닐까요? 김구 선생은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무력 강국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문화로 세계에 무언가를 주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이 말한 **"문화의 힘"은 단순히 음악이나 영화나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문화는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힘, 문화였습니다. 그는 당시 인류가 불행한 이유 세가지를 말합니다.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바꾸는 문화의 힘을 강조하고 말 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말한 문화는 단순한 **Entertainment**가 아니였던 것입니다. 문화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복을 이상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기독교를 자신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구 선생의 인생 전체가 처음부터 기독교인의 삶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 그는 동학을 경험했고, 불교에도 귀의하여 마곡사에서 승려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 **1900년대 초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아내 최준례 여사 또한,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 있었고, 김구 선생은 기독교 청년운동과 교회 활동에 참여했으며, 황해도 등지에서 교육과 전도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김구 선생에게 기독교는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그의 삶과 민족운동, 독립운동 그리고 인간관, 세계관, 정체성 실제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자비와 인의, 세계 평화, 다른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문화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크리스챤의 정체성에서 나온 것이 었습니다.**

youtube@ISMChurch

● 나눔 요약 2 (2026 Sep. 6 주일 찬양과 경배)



Pastor HS Jang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3–4

성경은 문화가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돌아보라고 말씀 합니다.

또한 김구 선생은 문화 중요성과 함께 사해동포(四海同胞)주의를 말했습니다. 세계 인류가 서로 형제처럼 살아가는 이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각 민족이 자주적인 나라를 이루고, 각자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그 문화를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나만 잘살자"가 아닌" 같이 잘살자"** 였고**"우리의 문화와 힘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게 하자."** 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이 말씀은 기독교 인간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가진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유럽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와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와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사람을 볼 때 "한국 사람인가?" "외국 사람인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가?" 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김구선생의 사해동포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챤의 인간관인 것입니다.**

각각 고유문화와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인간은 서로 경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며, 서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입니다.

백범선생은 말합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너만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받은 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문화는 '주는 문화'인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높은 문화를 이루어 다른 민족과 서로 나누고 돕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문화 '주는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먼저 요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나 복음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세상은 "내가 얼마나 높은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문화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대한 정치제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막강한 군대를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나 2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

예수님께서 사랑의 문화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을 만지고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아이들을 품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예수님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힘을,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문화인 것입니다.** 오늘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악을 듣고,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 크리스챤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게 할 것인가? "** K-Pop만 보게 할 것입니까 K-Drama만 보게 할 것입니까 K-Food만 먹게 할 것입니까 물론 이것들도 한국을 알리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크리스천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할 수 있는가 ? K-Pop과 같이 K-크리스챤이란 말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목적이 K-크리스챤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K-크리스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은 더욱 더 깊이 있는 앎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문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행하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행동,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크리스챤이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K-크리스챤의 문화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존중의 태도가 문화이고** 그 모든 것이 모여 K-**크리스천의 문화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김구 선생은 사해동포의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서로 형제가 문화을 공유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지금 세계가 **K-Culture (K-pop, K-drama, K-food, K-movie)**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 K-크리스천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야 합니다.** 한국의 문화(엔터테인먼트)가 세계에 행복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크리스천 문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인들을 섬기고 행복을 주고 하나님을 알게하는 K-Christian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K-Christian Culture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말이 전 세계에 유행이 되는 날이 곧 올 것을 믿고, 행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youtube@ISMChurch